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전북세계물류박람회'가 키워드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생산교역의 핵심 거점화로 전라북도를 환황해권 물류중심지화하여, 물류단지, 도시용 첨단산업단지 등 3천만평 규모의 부가가치형 물류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비전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2007 전북 세계물류박람회 (LOGEX; World Logistics Expo)'와 새만금 간사지 내 '부가가치형 물류기업도시 개발',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이다. 특히 세계물류박람회는 가장 먼저 실시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한다.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Logex Cneter)에서 개최되는 '2007 전북 세계물류박람회'는 전라북도를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 허브, 전북의 미래'라는 주제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생산 교역의 핵심 거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만4,542㎡의 실내 전시장을 포함, 9만 9,150㎡ 부지에 세워질 박람회장은 보관, 하역, 포장, 재고관리 장비 및 시스템과 RFID, SCM 등 물류솔루션 등이 전시될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특장차 트랙, 물류 시설 장비, 철도 수송장비, 파렛트 등 물류기기가 전시될 새만금전시관, 물류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게 될 영상관으로 구성된다. 또 박람회 기간중에는 전시회와 함께 '동북아 물류 증가에 대비한 새만금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도 3일간 열린다.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세계물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군산과 새만금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물류중심으로서의 가치와 동북아의 로테르담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상해, 천진, 대련, 청도 등 중국 주요 항만과 누적거리로 가장 가까워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환황해권 중심지로는 최적이라는데 있다. 또 남북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면 '뉴 아시아 게이트'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만금사업지구는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값싸고 광활한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형 물류기업도시를 건설은 물론, 새만금 방조제를 새만금 신항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LOGEX Center(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 전면 새만금 간사지 3,000만평에 건설되는 부가가치형 물류기업도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 조성될 150만평에는 조립, 가공, 운송, 보관, 포장, 물류시설 제조, 조선업 등을 유치하는 등 FTA 효과에 따른 국내의 물류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물류단지, 도시용지, 첨단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단지 등 다국적 물류기업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물류**

